

논문 24

고등학생의 재학 고교 계열 구분의 결정 요인

나 승 일*·마 상 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의 학습경험은 곧 미래의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인생설계를 위한 토대가 되며, 이러한 삶의 핵심은 곧 일(work)이 된다(이무근, 2003). 즉,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한다는 것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학습경험은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는 학습경험을 형성하는 교육환경이다. 이러한 모든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일의 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하게 된다. 한 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는 그의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및 태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이 계획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진로지도라고 한다. 하지만 입시제도의 유동성과 학력이 곧 직업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폐단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충분한 자아탐색과 직업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가치 준거를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이 세운 목표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등교육의 일반화와 고졸 이하의 직능수준 직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단선형 교육체제이면서도 고등학교 단계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계열화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계열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계획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Sewell and Hauser,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976; Rosenbaum, 1976; Heyns, 1974; 오성철, 1989; 성기선, 1988; 홍영란, 1983)의 경우, 고등학교 계열간 학생들의 교육 및 직업포부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계열의 학습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고등학교 계열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분화가 개인의 지위 획득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주어 일반계 고교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들의 교육 및 직업포부가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및 가정 환경 및 진로계획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석사학위 논문으로 조사 대상이 전국적이지 않고 일부 지역 혹은 학교 유형에 국한되어 대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전방연, 2004; 조상철, 2003; 최미자, 2002; 지민정, 2000 등). 또한, 계열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경험이 그들의 진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학습경험, 그리고 직업세계로의 이행 준비에 대한 총체적 흐름에 대해 조망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구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정책을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수준이며 그 기저에 존재하는 여러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정책결정에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흥미 및 학업효능감, 진로계획, 진로지도 및 근로경험, 자아관 및 직업의식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상호 관계에 관한 정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전환을 준비시키고 촉진하는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진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두 계열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구분해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일의 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의 활용 및 가치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구분해 주는 변인들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판별 점수는 서로 다른지를 결정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구

분해 주는 변인들을 구명한다.

셋째, 이러한 판별 변인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판별 점수 변량의 설명력을 결정한다.

넷째, 이러한 판별 변인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비율을 결정한다.

3.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2004년에 이루어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각각 2천씩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II.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고등학생들의 고교 계열을 구분해 주는 변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의 영역을 기초로 성별, 교육환경,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아관 및 직업관, 재학중 일 경험, 진로지도, 진로선택 및 계획, 진학계획, 취업계획 등에서의 고등학생 계열 간의 차이가 중점적으로 고찰되었다.

1. 교육환경

학생의 학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을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적 장소로 보았을 때, 교육환경은 크게 사회 심리적 환경, 시설적 환경, 교사 또는 부모 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숙영, 1993; 정원식, 1986). 사회 심리적 환경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풍토 혹은 분위기를 말하며, 시설적 환경은 건물이나 교재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말한다. 교사 또는 부모환경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사 혹은 부모의 능력, 인성, 태도, 인생관, 교육관 등을 말한다.

교육은 인간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 환경, 행동은

각각의 양방향적인 이원적 결합이 아니라 삼원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환경, 개인,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의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Woolfork, 1995). 이와 같이 교육환경은 학습자와 행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과거 형식적인 학교에서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환경까지를 포함하는데 특히 가정과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서숙영, 1993). 그러나 최미자(2002)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가정환경,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성취와 진로 간에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2.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도

김명곤(1998)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적응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체로 부모의 관심 부족과 경제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학할 수밖에 없는 학교환경 등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적응 문제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김미진(2003)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도는 대체로 낮았는데, 4개 영역 가운데 교우관계를 제외한 교사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서 모두 적응도가 낮았다고 한다. 그러나 오재환(2000)은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미자(2002)는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는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주(2002)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도 수준은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교사, 교우, 학업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학교환경 부문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진로와 관련한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였다. 고학년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 가운데, 물리적 환경인 학교 및 교실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교사와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자(2003)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학교생활의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하였다.

3. 가정생활과 만족도

학교환경과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김중여, 1992)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성적이 부진하거나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고, 실업계 여고생들의 가정환경 변인(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가정의 월 총수입)은 인문계 고교생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임지수(2003)는 부모의 학력, 가정생활 수준 및 가정결손정도, 부모의 직업 등의 가정환경 특성이 일반계나 실업계 고교로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고는 사무종사자 및 준전문가, 실업고 및 산업고는 조립종사자 및 서비스종사자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학생 가운데(이승중, 2003). 가정환경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불만족 학생들보다 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계획성, 정보 활용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4. 자아관 및 직업의식

청소년 시기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동이 아닌 성인으로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 판단과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혼란을 느끼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의 부족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성미,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학생들의 진로탐색, 진로결정 및 진로미결정과 같은 진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Vondracek et al., 1992).

한편, 청소년기는 직업에 관한 현실적 선택의 시기가 아닌 잠정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등학생 시절에 형성된 직업관은 미래의 직업생활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이정근, 1984). 즉 고등학교 시절의 직업관은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에 영향을 준다(권용환, 1990; 신덕자, 1988; 정진구, 1987). 또한 직업관은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학벌, 돈과 배경, 권력을 필요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적성과 실력을 필요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정명규, 2003).

이승중(2003)은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에 대한 태도와 정보 활용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상철(2003)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진로태도 수준이 높으나 자아개념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김미진(2003)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각하고, 자아존중감이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으나 진로태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정수자(1999)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하여 일반자아개념과 학업과 관련된 하위 자아개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신체, 외모, 동성과 이성 친구관계, 부모관계, 정서 및 정직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철(1997)은 일반계 고교생들이 실업계 고교생들에 비하여 학업에서의 성취를 추구하므로 개인주의의 경향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낮다고 보았다.

5. 재학 중 일 경험

이철위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86.3%가 학교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더 이상 학교교육이 실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인식 증가에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형하, 이용교, 2002; 장원섭, 2000). 학생들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학교수업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의 비행 및 탈선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Rothstein, 2001; Light, 2000; 한경혜, 2000).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방학 중 근무활동은 학업성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thstein, 2001). 실제로, 전방연(2004)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일에 대한 태도와 행동영역인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에서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와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 진로지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졸업 후 진학이 고정된 진로로 생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병행되어야 하고, 학생들 역시 졸업 전에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선택을 통해 그에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선택에서부터 많은 혼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정명규(2003)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진로결정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능력부족, 성적부진, 진로선택방법의 무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기대 및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애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자신 및 관련 직업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들이 진로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기회는 낮고, 학교에서 받는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대상은 부모나 친척, 학교선생님, 선배 또는 동료, 문헌 매체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진로지도를 받는 경우는 학교행사, 교사와의 상담,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규, 2003; 김운열, 1986).

7. 진로선택과 진로계획

최창식(2002)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체적인 인성유형 분포는 사회적, 사회적, 예술적, 탐구적, 현실적, 설득적, 관습적 유형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과 진로선택간의 일치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권용미(2003)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진로태도와 사회적 지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일반계 고교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은 상호작용하여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승중(2003)은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에 대한 태도와 정보 활용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진로계획은 개인이 평생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보람 있게 누리기 위해 사전에 실친 가능한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으로서 개인이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이해, 탐색, 선택, 준비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진학계획과 취업계획으로 구분된다.

가. 취업 계획

이승중(2003)은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애(1999)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직업선택 장애 요인으로 자격증 미취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직업정보를 많이 습득하는데 반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성적 부진을 가장 큰 직업 선택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대중매체로부터 가장 많은 직업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집(1998)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대다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양성남(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공업계 고등학생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절대 다수였고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나. 진학 계획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계열에 상관없이 대학진학을 했거나 희망하는 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으나, 실제 진학현황에서는 실업계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인문계의 경우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의 계열화가 고등교육의 위계화로 이어지고 있다(성기선, 1988). 이러한 대학 진학에 요구는 곧 직업포부로 이어지는데, 고등학생의 미래 희망직업은 계열에 상관없이 그들의 교육기대 수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홍영란, 1983). 김대원(2000)은 대다수 일반계 고교생의 입학 동기는 대학 진학에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애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하는 학생이 많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장래의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성적 부족 등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는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남, 여 학생 모두 진학이나 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였다(최미자, 2002). 지민정(2000)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계획 분석에 따르면, 실고생들의 대학 진학 포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고졸 학력 직업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학교의 소재지, 학교의 진학지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의 소재지, 학교의 진학지원 환경, 성별, 전공계열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진학 계획과 대학 진학 포부의 상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모형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재학 고교 계열을 구분해주는 변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계열과 관련된 변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2004년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가운데 판별분석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변인들만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 흥미와 효능감, 진로계획, 진로지도 및 근로경험, 자아관 및 직업의식, 고민거리, 교사평가 등 9개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패널 조사자료 및 각 학생의 담임교사 패널 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수는 일반계 고등학생 2000명, 실업계 학생 2000명, 그리고 각 고등학생의 담임교사 40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 총 9개 영역 35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변인별 문항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인별 문항 구성

영역	변인	패널조사 문항(하위문항)	신뢰도(alpha)	응답
인구학적 특성	- 성별	56		
학교생활	- 학교생활 만족도	4	.570	학생
	-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5(1,2,3,4)	.707	
	-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6(1,2,3,4,5,6)	.680	
	- 교사와의 관계	7(1,2,3,4)	.667	
	- 친구와의 관계	8(1,2,3,4,5,6,7)		
가정생활	- 가정생활 만족도	16	.796	학생
	- 보호자 동거유무	18		
	- 보호자에 대한 인식	19	.773	
	(남성 보호자)	a(1,2,3,4,5,6,7)		
	(여성 보호자)	b(1,2,3,4,5,6,7)		
	- 형제자매 유무	20		
	- 가족 활동	21(1,2,3,4,5) 단순합산		
- 가정의 경제적 수준	13(8)		교사	
학업흥미와 효능감	- 학업 흥미 ²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30a (국어1,영어1,사회영역1) (수학1,과학영역1)	.579 .573	학생
	(음악, 미술, 체육)	(음악1,미술1,체육1)	.464	
	- 학업 효능감 ² (국어, 영어, 사회과) (수학, 과학)	30b (국어2,영어2,사회영역2) (수학2,과학영역2)	.597 .565	
	(음악, 미술, 체육)	(음악2,미술2,체육2)	.484	
	- 미래 직업결정 유무	36		
	- 희망 교육수준	38, 39 ¹		
진로계획	- 진로계획 (진학계획) (취업계획)			학생
진로지도 및 근로경험	- 적성인지 유무	43	.636	학생
	- 진로교육 경험 유무	44(1,2,3,4,5,6) 단순합산		
	- 진로관련 가정 활동	45(1,2,3,4)		
	- 아르바이트 경험	48		
자아관 및 직업의식	- 자아관	50(1,2,3,4,5,6,7)	.660	학생
	-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	52(1,2,3,4,5,6)	.759	
고민거리 ²	- 학업, 진로 고민	64(1,2)	.766	학생
	- 가정 고민	64(3,4)	.553	
	- 친구관계 고민	64(5,6,7,8)	.606	
교사평가 ²	- 학교생활 성실성	13(1,2,3,10)	.660	교사
	- 학교생활 성취도	13(4,5,6,7,9)	.739	

1: 39번 1개 문항을 가지고 진학계획 변인과 취업계획 변인 등 2개 변인 생성

진학계획변인의 경우 39번 1또는 5응답자는 1 나머지는 0

취업계획변인의 경우 2응답자는 1, 나머지는 0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하위 척도를 구분하였음.

인구학적특성 영역에는 성별이 있고, 학교생활 영역에는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5개 변인, 가정생활 영역에는 가정생활 만족도, 보호자 동거유무, 보호자(남성, 여성)에 대한 인식, 형제자매 유무, 가족 활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 7개 변인, 학업성취 영역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문과

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흥미, 수학, 과학 등 이과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흥미,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흥미 그리고 문과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효능감, 이과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효능감, 예체능계열 교과에 대한 학업효능감 등 6개 변인, 진로계획 영역에는 미래 직업결정 유무, 희망 교육수준, 진로계획(진학, 취업) 등 4개 변인, 진로지도 및 근로경험 영역에는 적성인지 유무, 진로교육 경험유무, 진로관련 가정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등 4개 변인, 자아관과 직업의식 영역에는 자아관,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 등 2개 변인, 고민거리 영역에는 학업 및 진로 고민, 가정문제 고민, 친구관계 고민 등 3개 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평가 영역에는 학교생활 성실성, 학교생활 성취도 등 2개 변인이 있다.

각 변인이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는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을 계산하였다. 확인된 변인들의 alpha 값은 최저 0.464에서 최고 0.796으로 분포되었는데,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척도의 구성 문항의 수가 2-3인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수용할 수 있으나 매우 낮은 변인은 예체능과목의 학업 흥미(0.464)와 학업 효능감(0.484)이었다. 한편, 학업흥미와 학업효능감 변인, 고민거리 영역, 담임 학생에 대한 교사평가 영역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각각 하위 척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각각 신뢰도 값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의 기술통계치와 t-검증, 판별분석 등의 추리통계 기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2.0이었고, 추리통계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alpha 값 0.05수준에서 판단하였다. 한편 상관관계의 정도의 해석에 있어서는 Davis(1971)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IV. 연구의 결과

1. 고등학생 고교 계열의 판별변인별 차이

계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판별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 검증결과는 <표 2>와 같았다. t 검증 결과 성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예체능교과(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가정문제에 대한 고민, 친구관

계에 대한 고민, 학교생활 만족도, 취업계획 등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그밖에 두 계열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변인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정도가 높았다.

<표 2> 고등학생 계열의 판별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

판별변인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V1) ¹	1.45	0.50	1.45	0.50	0.70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V2) ²	11.96	2.35	11.94	2.43	0.83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V3) ²	18.24	3.82	18.27	3.67	0.76
교사에 대한 인식(V4) ²	2.77	1.25	2.61	1.38	0.00
친구에 대한 인식(V5) ²	24.40	3.45	23.75	3.36	0.00
가정생활 만족도(V6) ²	3.70	0.91	3.41	0.95	0.00
보호자와 동거 유무(V7) ³	0.94	0.23	0.94	0.23	0.84
남성보호자에 대한 인식(V8) ²	24.40	4.54	23.17	4.63	0.00
여성보호자에 대한 인식(V9) ²	27.34	3.98	26.02	4.21	0.00
형제자매 유무(V10) ³	0.92	0.27	0.89	0.31	0.01
가족 활동(V11) ²	9.61	2.69	8.82	2.88	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V12) ²	3.01	0.77	2.62	0.84	0.00
학업흥미(국어, 영어, 사회)(V13) ²	9.71	2.36	8.28	2.38	0.00
학업흥미(수학, 과학)(V14) ²	5.78	2.24	4.79	1.78	0.00
학업흥미(음악, 미술, 체육)(V15) ²	10.05	2.47	9.71	2.52	0.00
학업효능감(국어, 영어, 사회)(V16) ²	8.21	2.11	7.35	2.08	0.00
학업효능감(수학, 과학)(V17) ²	4.70	1.84	4.33	1.53	0.00
학업효능감(음악, 미술, 체육)(V18) ²	8.61	2.34	8.64	2.32	0.71
학교생활 성실성(V19) ²	11.57	1.28	11.19	1.79	0.00
학교생활 성취도(V20) ²	16.53	2.82	16.07	3.01	0.00
진로교육 경험 유무(V21) ³	2.79	1.34	2.59	1.54	0.00
진로관련 가정 활동(V22) ²	3.25	1.04	2.83	1.24	0.00
아르바이트 경험(V23) ³	0.20	0.40	0.57	0.50	0.00
자아관(V24) ²	22.99	3.25	22.18	3.31	0.00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V25) ²	20.95	3.24	19.86	3.46	0.00
학업, 진로 고민(V26) ²	5.53	1.32	4.93	1.34	0.00
가정 고민(V27) ²	3.29	1.13	3.66	1.21	0.00
친구관계 고민(V28) ²	6.50	1.78	6.62	1.84	0.03
학교생활 만족도(V29) ²	3.30	0.80	3.41	0.84	0.00
미래 직업결정 유무(V30) ³	0.72	0.45	0.61	0.49	0.00
적성인지 유무(V31) ³	0.71	0.46	0.58	0.49	0.00
희망 교육수준(V32) ²	3.22	0.75	2.39	0.76	0.00
진학계획(V33) ³	0.96	0.19	0.69	0.46	0.00
취업계획(V34) ³	0.02	0.12	0.24	0.42	0.00

1: 1=남자 2=여자

2: 수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음을 의미(활동이 높다는 것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인식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고, 고민이 높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

3: 없음=0 있음=1

2. 고등학생 계열 판별변인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 계열 판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았다. Davis(1971)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substantial) 상관(상관계수 절대값 0.50이상)의 경우는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과 미래 직업결정 유무간(0.55), 가정생활만족도와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간(0.51), 보호자 동거유무와 여성보호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간(0.52), 보호자 동거여부와 친구관계 고민간(-0.55), 여성보호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형제자매 유무간(0.54), 학업흥미(수학, 과학)와 학업효능감(수학, 과학)간(0.69), 학업흥미(음악, 미술, 체육)와 학업효능감(음악, 미술, 체육)간(0.74), 학업효능감(국어, 영어, 사회)과 학교생활성실성간(0.73),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간(0.60) 등 9개 관계가 있었다.¹⁾ 한편 상관계수 절대값 0.30이상 0.49사이의 적절한(moderate) 상관관계는 34가지가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상관계수가 절대값 0.29이하였다.

3. 고등학생 계열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고등학생 계열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판별점수 평균은 0.75, 실업계 고등학생 판별점수 평균은 -0.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과 가장 관련이 높은 판별변인은 희망교육수준(0.47)이고, 실업계 고등학생과 가장 관련이 높은 판별변인은 아르바이트 경험(-0.43)이었다. 구조행렬을 보면, 고등학생 계열과 가장 관련이 높은 판별변인은 희망교육수준(0.69), 아르바이트 경험(-0.53), 진학계획(0.48), 취업계획(-0.43), 학업흥미(국어, 영어, 사회)(0.37) 등 이었다.

판별함수에 의해 두 계열 고등학생간의 구분은 38.4%가 설명이 되었다.

1) 취업계획과 진학계획간의 높은 역상관계수(-0.83)는 동일변인에 대하여 Dummy 변인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음

<표 3> 고등학생 계열 판별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4	V15	V16	V17	V18	V19	V20	V21	V22	V23	V24	V25	V26	V27	V28	V29	V30	V31	V32	V33	V34	V35		
V1	1.00																																				
V2	0.01	1.00																																			
V3	0.00	-0.01	1.00																																		
V4	0.01	0.13	0.38	1.00																																	
V5	-0.06	0.01	0.31	0.23	1.00																																
V6	-0.10	0.01	0.22	0.18	0.24	1.00																															
V7	-0.15	-0.03	0.21	0.14	0.14	0.23	1.00																														
V8	0.00	0.02	-0.02	-0.08	-0.04	-0.03	0.02	1.00																													
V9	-0.13	-0.02	0.22	0.17	0.20	0.27	0.52	-0.02	1.00																												
V10	-0.16	0.06	0.21	0.16	0.23	0.31	0.44	0.01	0.54	1.00																											
V11	-0.04	0.13	0.00	0.07	-0.03	0.01	0.03	0.01	-0.02	0.01	1.00																										
V12	-0.14	0.03	0.10	0.06	0.19	0.19	0.30	0.03	0.36	0.34	0.02	1.00																									
V13	-0.23	0.02	0.01	-0.01	0.04	0.09	0.22	0.02	0.16	0.16	0.06	0.24	1.00																								
V14	-0.29	0.05	0.15	0.13	0.20	0.21	0.14	-0.03	0.17	0.23	0.01	0.19	0.11	1.00																							
V15	-0.24	-0.08	0.16	0.13	0.16	0.18	0.15	-0.03	0.17	0.16	0.05	0.13	0.11	0.17	1.00																						
V16	-0.07	-0.03	0.09	0.12	0.17	0.23	0.05	-0.03	0.11	0.15	0.01	0.12	0.01	0.23	0.20	1.00																					
V17	-0.20	-0.01	0.12	0.09	0.18	0.23	0.17	-0.03	0.19	0.23	-0.01	0.22	0.13	0.69	0.14	0.15	1.00																				
V18	-0.11	-0.10	0.15	0.12	0.15	0.19	0.17	-0.06	0.18	0.17	0.04	0.17	0.12	0.10	0.74	0.15	0.30	1.00																			
V19	0.01	-0.02	0.08	0.12	0.17	0.24	0.06	-0.04	0.12	0.15	0.01	0.15	0.00	0.15	0.09	0.73	0.24	0.20	1.00																		
V20	-0.12	0.03	0.13	0.08	0.09	0.07	0.13	0.01	0.12	0.11	0.02	0.02	0.16	0.16	0.19	0.01	0.14	0.16	-0.07	1.00																	
V21	-0.08	0.05	0.10	0.09	0.18	0.20	0.12	-0.03	0.15	0.19	0.00	0.10	0.28	0.18	0.19	0.10	0.21	0.22	0.09	0.44	1.00																
V22	-0.07	0.04	0.09	0.08	0.20	0.15	0.06	-0.02	0.11	0.11	0.01	0.14	0.05	0.16	0.06	0.12	0.16	0.09	0.13	0.08	0.12	1.00															
V23	-0.18	0.08	0.07	0.10	0.19	0.20	0.21	-0.02	0.28	0.31	0.04	0.25	0.14	0.19	0.10	0.13	0.20	0.12	0.13	0.11	0.16	0.28	1.00														
V24	0.38	0.02	-0.02	0.00	0.00	0.00	-0.16	0.00	-0.12	-0.08	-0.03	-0.09	-0.17	-0.12	-0.15	0.06	-0.10	-0.11	0.11	-0.23	-0.06	0.01	-0.08	1.00													
V25	-0.12	-0.02	0.21	0.15	0.30	0.51	0.30	-0.01	0.36	0.39	0.02	0.28	0.18	0.30	0.21	0.34	0.39	0.29	0.43	0.10	0.33	0.20	0.30	0.01	1.00												
V26	-0.16	-0.06	0.15	0.10	0.25	0.32	0.21	-0.01	0.29	0.31	0.00	0.20	0.09	0.25	0.16	0.26	0.28	0.19	0.30	0.03	0.18	0.19	0.27	0.00	0.60	1.00											
V27	-0.22	0.07	-0.07	-0.01	0.00	0.07	-0.05	-0.01	0.01	0.06	0.01	0.01	0.03	0.14	0.07	0.09	0.04	-0.01	0.01	0.08	0.05	0.06	0.08	-0.05	0.03	-0.02	1.00										
V28	0.16	0.00	-0.12	-0.07	-0.05	-0.12	-0.55	-0.02	-0.44	-0.33	-0.04	-0.27	-0.24	-0.06	-0.11	0.03	-0.11	-0.12	-0.01	-0.09	-0.06	-0.02	-0.14	0.16	-0.20	-0.11	0.20	1.00									
V29	0.03	0.07	-0.18	-0.07	-0.06	-0.12	-0.20	0.00	-0.18	-0.15	0.01	-0.09	-0.03	-0.06	-0.07	0.01	-0.11	-0.11	-0.06	-0.02	-0.04	-0.02	-0.06	0.05	-0.20	-0.20	0.26	0.34	1.00								
V30	0.07	-0.02	0.55	0.25	0.27	0.22	0.22	-0.02	0.20	0.20	0.02	0.12	0.03	0.11	0.15	0.10	0.10	0.15	0.09	0.12	0.12	0.08	0.07	0.03	0.23	0.15	-0.06	-0.11	-0.14	1.00							
V31	-0.12	0.08	0.05	0.05	0.15	0.15	0.11	-0.01	0.11	0.14	0.01	0.09	0.08	0.14	0.06	0.10	0.11	0.06	0.10	0.06	0.13	0.12	0.21	0.04	0.29	0.30	0.01	-0.07	-0.03	0.05	1.00						
V32	-0.13	0.00	0.08	0.07	0.19	0.17	0.10	0.01	0.14	0.14	0.01	0.13	0.09	0.14	0.09	0.18	0.14	0.10	0.19	0.02	0.09	0.16	0.21	-0.03	0.31	0.44	-0.02	-0.07	-0.09	0.06	0.37	1.00					
V33	-0.48	-0.04	0.01	0.01	0.11	0.17	0.15	-0.07	0.17	0.18	0.02	0.19	0.27	0.33	0.29	0.09	0.29	0.24	0.03	0.17	0.24	0.12	0.18	-0.28	0.23	0.20	0.19	-0.14	-0.04	0.02	0.16	0.15	1.00				
V34	-0.36	-0.05	-0.01	-0.02	0.05	0.09	0.13	0.02	0.13	0.15	0.02	0.15	0.24	0.20	0.13	0.07	0.17	0.08	0.03	0.13	0.17	0.06	0.17	-0.20	0.15	0.10	0.18	-0.14	-0.03	-0.02	0.13	0.13	0.41	1.00			
V35	0.33	0.13	0.03	0.05	-0.02	-0.08	-0.09	-0.01	-0.09	-0.12	0.01	-0.13	-0.21	-0.15	-0.11	-0.04	-0.14	-0.08	-0.02	-0.08	-0.13	-0.04	-0.11	0.17	-0.11	-0.07	-0.16	0.10	0.02	0.04	-0.07	-0.08	-0.38	-0.83	1.00		

<표 4> 판별분석 결과의 요약

판별 변인	b	s	판별 함수	
			집단	중심점
성별	-0.01	-0.04	일반계 고등학생	0.75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0.05	-0.01	실업계 고등학생	-0.83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0.03	-0.02		
교사에 대한 인식	0.02	0.07		
친구에 대한 인식	-0.01	0.10		
가정생활 만족도	0.02	0.17		
보호자 동거	0.02	0.00		
남성보호자에 대한 인식	-0.07	0.16		
여성보호자에 대한 인식	0.04	0.19		
형제자매 유무	0.04	0.03		
가족 활동	-0.01	0.16		
가정의 경제적 수준	0.14	0.27		
학업흥미(국어, 영어, 사회)	0.20	0.37		
학업흥미(수학, 과학)	0.33	0.29		
학업흥미(음악, 미술, 체육)	0.00	0.08		
학업효능감(국어, 영어, 사회)	0.01	0.25		
학업효능감(수학, 과학)	-0.25	0.13		
학업효능감(음악, 미술, 체육)	-0.00	-0.01		
학교생활 성실성	-0.03	0.18		
학교생활 성취도	-0.13	0.10		
진로교육 경험 유무	0.01	0.09		
진로관련 가정 활동	0.11	0.24		
아르바이트 경험	-0.43	-0.53		
자아관	-0.12	0.15		
직업인으로서의 자의식	0.17	0.21		
학업, 진로 고민	0.24	0.28		
가정 고민	-0.12	-0.19		
친구관계 고민	-0.01	-0.03		
학교생활 만족도	-0.19	-0.09		
미래 직업결정 유무	0.03	0.16		
적성인지 유무	0.04	0.17		
희망 교육수준	0.47	0.69		
진학계획	0.17	0.48		
취업계획	-0.10	-0.43		
고유값	정준상관계수		Wilks' Lamda	p
0.623	0.620		0.616	0.000

b: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s: 구조행렬

한편, 실제집단과 판별함수에 따른 예측집단 분류결과 <표 5>와 같았다. 판별함수에 의한 고교생 계열은 79.4%로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표 5> 실제집단과 관별함수에 따른 예측집단 분류

실제 집단	사례	예측집단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1824	1515 83.1%	309 16.9%
실업계 고등학생	1641	405 24.7%	1236 75.3%

사례의 분류 정확률: 79.4%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보호자와의 동거유무, 학업효능감(음악, 미술, 체육)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의해 구분될 수 있었고, 관별 평균 점수는 서로 달랐다. 즉, 고등학생들은 재학하는 학교의 계열에 따라 많은 점에서 달랐으나 성별, 학교생활과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보호자와의 동거유무, 학업효능감(음악, 미술, 체육)에서는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희망 교육수준, 진학 계획, 학업흥미(국어, 영어, 사회) 변인에 의해 가장 잘 기술될 수 있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변인과 취업 계획 변인으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었다. 넷째, 고등학생들의 계열 관별 함수는 관별 점수 변량의 약 38%를 설명하였고, 전체 고등학생들의 약 79%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 제언

첫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 및 건전한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교생들은 일반계 학생들에 비하여 가정관계 고민과 친구관계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와 친구에 대한 실업계 고교생들의 인식 수준은 일반계 고교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적절한 생활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들의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수준은 일반계 고교생들의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진로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지에 진로교육(지도) 또는 진로

관련 경험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및 척도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4년의 조사 자료에는 미래 직업계획 유무, 고교 졸업 후 계획 등의 경우에 하나의 문항으로 묻거나, 자아관, 직업의식 등의 경우는 다소 모호한 성격의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보다 내적 합치도가 높은 문항들을 구조화시켜 측정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지도(교육) 경험들(문항 44)을 좀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험 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0, 1)가 아니라 얼마나 했으며, 어떤 것들을 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하위 문항으로 무엇인가를 측정하려는 문항들(예, 5번, 7번, 8번)은 내적 합치도가 낮은 편이다. 실제로 그 문항들을 통해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근로경험, 자아관 및 직업의식 등 조사지 영역별로 각 문항들이 얼마나 타당하게 배치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유용한 정책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하고 유용한 조사 문항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 계열을 구분해 주는 변인들을 구명하거나 2004년도 패널 조사 자료와 2005년도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는 분석연구가 이루어지면 실업계 고교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환(1990).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곤(1998). **인문계 고등학생의 계열 결정 요인과 진로지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운열(1986). **상업계 고교생의 직업선택관과 사회적 제 요인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1997). **한국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중여(1992). **심리적 학교환경과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교육연구소 논문집, 23, 189-251.
- 김홍자(2003). **학생, 부모, 교사가 지각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생활에 대한 분석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이상래(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성, 계열,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83-96.
- 박성미(2004).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11-20.
- 서숙영(1993). **가정의 환경적인 과정변인과 학업성적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가정의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제12권, 47-59.
- 성기선(1988). **고등학교 계열화의 사회배치 기능에 관한 종단적 연구: 계열배치 결정과 졸업 후 진로결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덕자(1988). **직업가치관과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남(2003). **공업계 고등학생의 기초실력과 진학에 관한 조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철(1989).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결정모형 탐색**.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만(1994). **교육분화체제와 사회 불평등**. 교육발전, 13(1), 69-121.
- 이무근(2003).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이윤옥(2004). **고등학생의 진로계획 및 진로지도 실태 분석**.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 이정근(1994).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부
- 이현주(200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형하, 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2), 889-100.
- 장원섭(2000).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진단과 대책.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YMCA.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방연(2004). **실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국, 양은주, 허희옥(2002).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40(5), 297-320.
- 정명규(2003). **효율적인 직업탐색과정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인간교육연구*, 10-2(6), 181-209.
- 정수자(1999).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3(3), 307-329.
- 정원식(1986)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정진구(1987). **인문계고교생의 진로선택경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 송병국, 허영준, 조명실(2004). **대학생용 직업지도 프로그램: CDP-C(직업궁합)**.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조상철(2003).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자아개념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민정(2000).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 계획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근집(1998).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자(200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153-180.
- 홍영란(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 Heyns, B. (1974). Social Selection and Stratification within Schools. *American Journal of*

- Sociology* 79, 1434-1451.
- Kleca, W. R. (1980). *A Sage University Paper: Discriminant Analysis*. Series / Number 07-019. Serie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AGE PUBLICATIONS, Inc.
- Light, A. (2000).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1), 65-93.
- McCaslin, N. L., Na, S. I., & Biggs, M. S. (1993). Variables Influencing Undergraduate Students'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Computerized Videodisc Instruction in Horticulture. *Proceedings of the 47th Central Regional Conference in Agricultural Education* (USA, 1993, 3).
- , Pinky, D. E. (2000). *Not by Book: A Case Study of Working Women's Ways of Learn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Mexico.
- Rosenbaum, J. (1976). *Making Inequality: The Hidden Curriculum of High School Tracking*. New York: Wiley.
- Rothstein, D. S. (2001). Youth Employment during School: Results Form Two Longitudinal Surveys. *Monthly Labor Review*, Aug, 25-37.
- Sewell, W., and Hauser, R. (eds.). (1976).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cademic press.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oolfolk, A. E. (1995). *Educational psychology*. Needham Heights M A: A Simon & Schuster Co.